



PROFESSORS' COUNCIL
DANKOOK UNIVERSITY
단국대학교 교수회

교수회브리프

Vol.17 2021학년 제2호



교수회 브리프 17권 2021학년 제2호. 발행일 2022년 3월 1일
발행인-조한승, 인쇄-이기광, 편집-이지수, 제호 로고 디자인-정훈동, 행정-엄희재·김현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상경관 532호 Tel 031-8005-2894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Contents

03 Welcome

권두언: 하나의 마침, 그리고 새로운 시작
- 조한승 교수, 교수회 회장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05 Strategy Session

제2회 교수회-대학 간 정기 복지협의체 및
기타 소통사항 보고
- 이기광 교수, 교수회 사무국장,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06 Community News

2021년 2학기 교수회 활동
- 신임교원 축전, 제2차 통합운영위원회, 교수회 특강,
제2차 복지협의체 회의, 미화원 설 선물 행사, 학사구조개편 공
청회, 2021학년도 2학기 교수회 임시 운영위원회의, 2022학년
도 1학기 정년퇴임식 등



10 Congratulations

혁신인재양성의 중요성
- 배성재 교수,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산학협력 선택인가? 필수인가?
- 한규동 교수, 과학기술대학 생명과학부



권두언: 하나의 마침, 그리고 새로운 시작



조한승 교수
교수회 회장,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이제 조금씩 팬데믹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끝까지 방역과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겠지요. 그래도 신학기에는 대면수업도 많아지고 학사운영도 정상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교수회는 나름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직접 만날 기회가 적다보니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묵묵히 기다리시며 지켜봐주신 교수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대학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학사운영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깐깐한 교육부 감사를 받아야 했고, 학령인구 저하에 따른 대학 사회의 위기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교수님들의 넓은 이해와 참여로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교수회도 학교와 교수님 사이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사구조개편 등 여러 현안들이 상호 이해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지면을 통해 대학 본부와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교수회에 참여해서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여러 운영위원 교수님들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겨우내 긴 잠에서 깨어나 웅비하는 곰처럼 이제 단국대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성큼성큼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에 입학하는 신입생들과 재학생들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의 비대면 생활에 익숙해진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지도할 것인지 고민하고 새로운 세대에 적합한 교수법도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연구에 있어서도 우리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의식이 먼저 공유되어야 할 것이고,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제도와 예산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서로 소통하는 장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이라고 해서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고 폄하하기보다는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라도 그 안의 장점을 모으면 기대한 것 이상의 혁신적 방법이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영국 시인 존 메이스필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대학 캠퍼스라고 했습니다. 봄을 맞이하는 우리대학 캠퍼스에 새로운 희망의 훈풍이 불기를 바랍니다.

12 Contribution

‘대학혁신지원사업’이요? 그게 뭔데요?

- 박웅준 교수,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장,
과학기술대학 생명과학부



피드백에 대한 단상

- 유혜원 교수, 자유교양대학



후회와 아쉬움을 지닌 채 떠나지만, 여러분만은 ...

- 유홍림 교수, 공공보건과학대학, 공공정책학과



퇴임하며 사랑하는 후배님들에게 한마디

- 윤경환교수,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지난 시절을 돌아보며 ...

- 박진완 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신임 교수의 서(序)

- 정찬원 교수, 사회과학대학 커뮤니케이션학부



지역사회와 학생들의 미래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 손원호 교수, 스포츠과학대학 생활체육학과



24 Book Review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니...

- 김태수 교수 (하이수 소설가). 예술대학 문예창작과



25 교수회 상조활동 및 소개

신임 및 퇴임교수, 상조활동



교수회 임원 및 운영진



교수회 사무국 안내 및 편집후기



제2회 교수회-대학 간 정기 복지협의체 및 기타 소통사항 보고



이기광 교수
교수회 총괄 사무국장,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회와 대학본부 간 정기적 소통채널의 일환으로서 정착하게 된 교수회-대학 간 제2차 복지협의체를 2021년 11월 1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교학부총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천안 교무처장, 죽전 산학협력단장 등 본부 측 대표와 교수회 임원진이 참석하여 2021학년도 2학기 통합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만, 국제저널 온라인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연구실적을 인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업적 기준 개정(안)'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시행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학사구조개편(안)'과 관련하여 교수회는 본부와 협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2월 10일과 14일 죽전과 천안에서 진행된 공청회를 통해 각 학과의 소중한 의견이 대학본부에 전달되었습니다. 본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개편(안)의 보완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수회에서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학교 발전을 위한 건설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의사항 | 진행 상황 ¹⁾ | 담당부처 의견 |
|-----------------------------|---------------------|---------------------------------|
| 국제저널 온라인 발행일자 기준 연구실적 인정 | △ | 연구업적 기준 개정 시행과 함께 반영 예정 |
| 방학 중 교원 해외여행 기간 30일 제한 폐지 | ○ | 2021학년도 겨울방학부터 소급 적용 |
| 연구물품 검수확인서의 사진첨부 규정 완화 | × | 정부 및 타대학의 검수 강화 추세로 규정 완화 불가 판단 |
| 외부과제 예산으로 출장시 교통수단 등급 제한 개선 | △ |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반영하여 여비규정 재검토 고려 |

1)진행상황 표기: 완료-○, 진행중-△, 미해결-×

지난 2월 초 각 학과에 전달된 연구의 질적기준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업적 기준 개정(안)'과 관련해서 많은 교수님들께서 교수회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수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2월 17일 온라인 임시통합운영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였습니다.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영위원분들께서 참석하셨고, 2시간 이상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교수회는 교학부총장께 운영위원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전달하고, 다수 교수님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협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교학부총장께서는 본부가 교수님들께 본의 아니게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하시고, 여러 의견과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교수회는 2월 24일 김수복 총장님을 예방하여 운영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설명드렸고, 이에 총장님께서 제기된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회는 구성원의 의견이 존중되는 건설적인 정책이 만들어 지기를 희망하며, 다양한 측면에서의 종합적 검토와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에 적극 이바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연구업적기준 개정 논의가 학교 발전구상에 대한 찬반의 논리로 왜곡되거나 구성원 사이의 편가르기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학본부와의 일련의 소통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과거 근무했던 모기업의 업무수행 원칙이 떠올랐습니다. “목표의 공유와 데이터에 따른 논리적 의사결정”입니다. 구성원들이 나아갈 목표를 공유하고 논리적으로 협의해 나가면 공감과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2021학년도 임금협상이 타결되어 기본급 **1.3%** 및 교재개발연구비 **9천원**의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수회는 원만한 협상 타결을 위해 본부와 노조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결정에 합의해 준 법인과 본부에 감사하며, 긍정적 결과를 도출한 직원노조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2021년 2학기 교수회 활동

2021. 08. 31
정년퇴임식

정년퇴임식을 맞아 교수회에서 꽃다발과 상품권을 증정했습니다. 박영준 부회장 및 정치영 부회장 등 교수회 임원진이 참석했습니다.



2021.09
신임교원 축전

신임교원 축전 발송 및 기념품 증정

2021.09.06
이영희 교수님(취창업지원처장) 명패전달

교수회에서는 생애 첫 보직(교무위원급)을 맡으신 교수님께 전체 교수님들의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명패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진: 왼쪽부터 이영희 취창업지원 처장, 조한승 회장, 이기광 사무국장

2021.09.13 장충식 명예이사장님, 장호성 이사장님 예방



사진: 왼쪽부터 강동승 감사, 정치영 부회장, 장호성 이사장, 임은주 축전지회 사무국장, 조한승 회장, 박성만 천안 지회사무국장

2021.09.15 김수복 총장님 예방



사진: 왼쪽부터 강동승 감사, 박영준 부회장, 조한승 회장, 김수복 총장, 정치영 부회장, 이지수 편집국장, 박성만 천안 지회사무국장, 이기광 사무국장

2021.09.30 제2차 통합운영위원회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거리두기 조치 관계로 불가피하게 축전과 천안에서 실시간 이원 화상회의로 진행하였습니다



축전캠퍼스 범정관 314호(화상회의실)



천안캠퍼스 인문과학관 208호(대회의실)

2021.10.14 한규동 교수님 (미래융합연구 원장) 명패전달 한규동 미래융합연구원장님께 2021학년 2학기 두번째 생애 첫 보직 기념 명패 전달행사가 이뤄졌습니다.



사진: 왼쪽부터 한규동 미래융합연구 원장, 교수회 회장, 박성만 천안지회사무국장

2021.09.24 교수회, 기획실장, 노조위원장 간담회 기획실장님과 노조위원장님 간 임금인상에 관한 협의가 이뤄졌고 교수회는 본부와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거중조정 역할 수행했습니다.

2021.10.15 교수회 특강 2021년 2학기 교수회 특강은 '정신건강과 코로나시대 학생상담'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늘어난 학생들의 심리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상담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1.10.18 교수회, 교학부총장님 간담회 이날 교수회와 교학부총장님 간에 이뤄진 간담회에서는 제2차 통합운영위원회의를 통해 논의된 결과를 전달하고 2차 복지협의체 일정과 사안 등에 대해 조율하였습니다.

2021.11.01 2021 학년도 제 2차 복지협의체 회의 이번 복지협의체 회의에서는 2학기 통합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논의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쪽 참조.



사진: 왼쪽부터 이기광 사무국장, 박영준 부회장, 정치영 부회장, 조한승 회장, 강세원 교학부총장, 유정석 기획실장, 강정원 교무처장, 허승욱 천안 교무처장, 김호동 죽전 산학협력단장

2021.12.13 천안 교무처장, 교수회 간담회 교수회와 천안 교무처장님 간 이날 간담회에서는 천안 캠퍼스 학사구조개편과 관련된 협의가 있었습니다.



2022.01.20 미화원 설 선물 행사 설을 맞이하여 미화원 분들에게 평소 도움에 대한 교수회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Community News

2022.01.25 김수복 총장님 예방

조한승 회장, 박영준 부회장, 이기광 사무국장, 임은주 죽전 지회사무국장, 박성만 천안 지회사무국장이 김수복 총장님을 예방하였습니다.

2022.01.26 장충식 명예이사장님, 장호성 이사장님 예방

조한승 회장, 이기광 사무국장, 임은주 죽전지회사무국장이 장충식 명예이사장님과 장호성 이사장님을 예방하였습니다.

학사구조개편 공청회 2022.02.10 죽전 2022.02.14 천안

교수회는 학사구조개편과 관련하여 대학본부와 소통해왔습니다. 학사구조개편에 대한 기본 취지와 구상을 교수님들께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통해 학과(부)장님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죽전과 천안 캠퍼스 별로 진행했습니다.



모든 공청회에는 교수회 회장, 사무국장, 임원이 참석했습니다. 본부 측에서는 죽전캠퍼스에는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및 기획실장이 참석했고, 천안 캠퍼스 공청회에는 천안 부총장, 천안 교무처장, 기획실장이 참석했습니다. 교수회는 참석자들에게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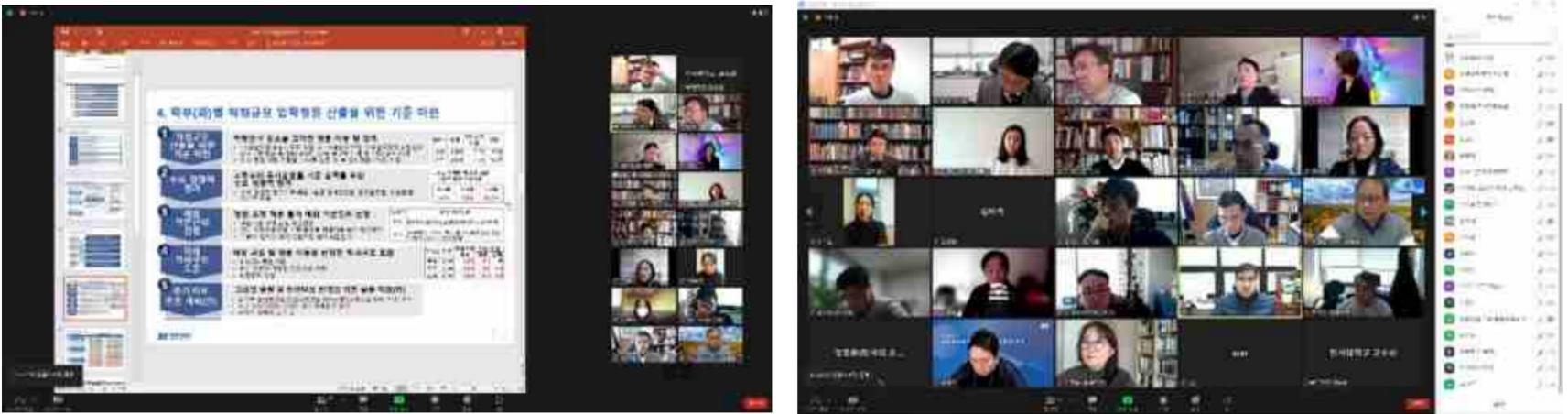
2월10일 14:00 죽전캠퍼스 사회과학관 215호



2월14일 11:00 천안캠퍼스 학생회관 103-01호

2022.02.17 2021학년도 2학기 교수회 임시 운영위원회 회의

교무처에서 진행하는 연구업적기준 개정(안)에 따라 각 학과(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이 전달됐습니다. 내용 중 질적 평가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있었고 교수님들의 승진/승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감하고 시급한 이슈가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수회는 시급한 사안에 대한 의견 취합을 위해 임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줌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이뤄진 이날 회의에는 학사구조개편 공청회 내용 소개하고 의견 구하는 한편 교원업적심사기준 변경에 관한 교수회 의견을 정리하고 제시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02.18 교학부총장 면담

교수회는 교학부총장님과 면담을 통해 전날 열린 교수회 임시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소개하고 교원업적심사 기준 개정과 관련된 논의를 하였습니다.

2022.02.24 2022학년도 1학기 정년퇴임식

지난 2월24일에는 2022학년도 1학기 정년퇴임식이 개최됐습니다. 조한승 회장님, 정치영 부회장님(천안), 이기광 사무국장님이 참석했습니다.



2022.02.24 교수회, 총장님 면담

교수회에서는 임시운영위원회 결과와 관련하여 2월24일 총장님과 면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참석자는 조한승 회장님, 정치영 부회장님(천안), 이기광 사무국장님 입니다.

**교수회브리프 제17권 2호 편집회의
2022.02.09.
2022. 02.21**

교수회 브리프 편집을 위한 회의가 두 차례 진행됐습니다.

Congratulations

혁신인재양성의 중요성

학업을 마치고 인텔에서 공정설계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2010년 우리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로 부임한 제가 항상 고민했던 것은 대학 연구의 실용성이었습니다. 공과대학 연구의 특성상 연구 개발 결과물들이 기업에 이전되어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연구 결과물들이 대학 내에만 머물지 않고 관련 기업들에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대학 교수가 산학협력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여러 선배 교수님들과 함께 엔지니어링·디자인센터를 2015년 대학 내에 설립하여 많은 산학협력 결과물들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19년 엔지니어링·디자인센터장을 맡게 되었고, 아울러 우리 대학 LINC+사업단 산하 4개 기업협업센터 중 스마트제조산업센터의 센터장을 수행하게 되어, 지속적으로 산학협력 연구, 기술교류 및 기술이전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20년 제가 책임자를 맡아 여러 교수님과 함께 구성한 사업단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후원하는 '대학 소재·부품·장비 기술전략 자문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의 기술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은 12개 대학 자문단 중 유일하게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가상설계 플랫폼 개발 및 고품질 부품제조를 위한 지능형 공정(사출, 표면처리) 설계 어드바이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술전략자문단 선정은 우리 대학 교수님들의 우수한 산학협력 실적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자문단과 플랫폼 운영을 통해 해당 분야의 기업들을 O2O(온라인-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과대학 기계공학과와 우수 교육 및 연구 역량으로 단국대학교 기계공학과(주관학과)와 토목환경공학과, 건축공학과(이하 참여학과)가 2018년 LINC+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교육부의 지원 속에 우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새로운 교육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을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혁신선도대학 사업단의 첨단교육 지원센터장을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많은 지원과 여러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지난 9월 산학협력분야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수한 교육 자원을 가지고 있는 대학, 그리고 선후배 교수님들의 우수 연구, 교육 역량때문에 제가 대표로 수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전략자문단 출범 및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총장님, 산학부 총장님, 미래교육혁신원장님, 산학협력단장님과 부단장님, 그리고 LINC+ 사업을 수행하면서 도움을 주신 단장님과 교수님, 공과대학 교수님,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는 여러 선후배 교수님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연구원님께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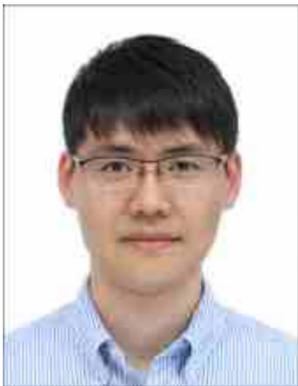
앞으로도 선후배 교수님들과 함께 지속적인 산학협력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여, 실용기술을 선도할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기업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재 교수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산학협력분야
교육부 장관상 수상"

산학협력 선택인가? 필수인가?



한규동 교수
과학기술대학
생명과학부

"LINC+육성발전
교육부 장관상 수상"

어느덧 모교에서 교수로 생활한지 1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2007년 'Science'에 논문을 게재하여 과학기술부가 선정한 "미래를 여는 우수 과학자 10명"에 선정되어 우수과학자상 수상을 통해 단국대학교 과학기술대학 미생물학과 교수로 임용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좋은 기회를 많이 열어주셔서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 BK21+사업, LINC+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큰 사업단에 참여하신 여러 교수님들과 호흡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제 자신과 실험실(연구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WCU와 BK21+사업을 통해 훌륭한 해외학자들과의 교류 및 공동연구를 가능하게 해주었고, 많은 대학원생들을 양성하며 기초·기반 연구를 완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뒤돌아보면, 경쟁력 있는 실험실을 유지하고 운영하기위해선, 맨 파워와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였고, 이러한 것들은 중대형 그룹 연구(사업단)를 통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산학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WCU와 BK21+사업의 경우도 산학협력이라는 성과지표가 있었지만, 기초연구를 하는 저에게 산학협력이 무엇인지 피부로 와 닿지 않았고, 그 당시 선택적이라고 느껴졌었습니다. 교수들이 기업을 방문하고 세미나를 통해 연구실을 소개하는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교육부 주관의 LINC사업을 알게 되었고, 그해 11월 (주)테라젠이텍스와 산학협력을 위하여 DKU-Theragen institute for NGS analysis(DTiNa) 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산학협력"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항상 해오던 기초연구들과 기업과의 접점을 찾으려 노력하였고, 어떻게 하면 연구(비)를 위한 연구 보다는 실용화 혹은 사업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전체 관련분야에 기업들의 대표들을 LINC사업단이나 각종 학회를 통해 만나고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연구와 마찬가지로 산학협력 또한 지속성과 진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집중한 것은 기업 맞춤형 대학원생들을 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대학원생들의 경우, 80%정도가 기업으로 취직하였습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교육방식이 아닌 기업으로 나아갈 학생들은 기업형 인재로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일깨우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취업하길 원하는 분야의 기업체 과제를 수행하고, 기업분들과의 미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애로기술자문, 연구논문, 산학공동연구과제(기업체과제)수주, 특허, 기술이전, 사업화 등이 서로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저와 저희 랩 학생들이 10년간 쌓아온 산학협력으로 유전체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바이오마커 개발, 질병예측/진단 등 국민 건강 및 복지향상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21년 7월,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출범 10주년 기념 산학협력 유공자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이 상은 10년간 성공적으로 LINC사업을 주도해 온 단국대학교에 주는 상을 대신 수상한 것 같습니다.

현재 단국대학교는 산학협력을 주도할 인프라가 잘 갖춰서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산학협력단, 공동기기센터, 기업협업센터, 창업보육센터, 핵심연구지원센터 등을 기반으로 LINC3.0, 캠퍼스혁신파크, 산학연협력단지조성사업과 같은 초대형 산학협력 국책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우리 단국대학교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 "산학협력"은 선택이 아닌 피할 수 없는 영역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산학협력의 주체가 기업, 학교, 연구소가 아닌 "학생"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이요? 그게 뭔데요??



박웅준 교수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장
과학기술대학 생명과학부

2019년 늦은 봄이었을까? 학교의 어느 부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자체평가위원을 맡아달라는 내용이었다.

“네? '대학혁신지원사업'이요?? 그게 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 사업이 무엇인지 모른 채 어정쩡하게 알겠다 했고, 내가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회의에 참석해서야 깨닫게 되었다.

교육부에서 대학을 지원하던 기존의 여러 사업을 하나로 묶어 대학이 스스로 세운 계획에 따라 발전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이라는 것이었다. 이 사업은 예산 규모가 방대한 만큼 우리 대학도 교육1, 교육2, 연구, 산학협력, 기타(행정) 영역으로 구분하여 상당히 많은 세부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나는 연구부문의 평가위원을 맡았는데 초기에는 평가는커녕 자율성과 지표와 실적을 산출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진땀을 쏟았다.

그럭저럭 자체적인 중간평가와 연차평가를 마치고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당시 위원장님이 위원장을 계속 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열걸에 위원장석에 앉아 회의를 진행하고 마무리했다. 중요한 업무가 종료된 상황이고 한 번만 임시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생각해서 정말 유쾌하게 회의를 잘 마쳤는데... 그 후로도 계속 자체평가위원장을 맡고 말았다. 이제 생각해보면 정말 잘 짜인 씨나리오(?)에 걸려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이유로 「대학혁신지원사업」 1주기가 마무리되는 현재까지 위원장이라는 중압감에 눌러있다.

자체평가위원장을 맡고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고 전 영역 사업구성의 구조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 대학의 1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학생 중심의 Humart University」 구축이다. 미래사회에 역동적으로 대응하여 교육환경과 교육프로그램, 교육방법, 연구지원 체계 및 연구인력양성시스템, 산학협력효율 극대화, 각 영역의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혁신 등을 포함한 시스템 구축을 1주기 사업 기간에 기획하고 시행하였다.

그러나 원래 계획과 다르게 우리 대학은 1주기 사업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세계를 휩쓴 COVID-19 감염사태로 인하여 마치 큰 바다를 항해하는 도중에 태풍을 만난 선박처럼 흔들렸다. 전면 비대면 수업이라는 파도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들이닥쳤고 초기에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흔들렸다. 그러나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주제는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의 하나로 온라인/비대면 수업시스템 구축도 계획되어 있었다. 비록 기존 계획을 변경하고 확장해서 적용해야 했지만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전면 비대면 교육 수요를 감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비대면 수업시스템 구축을 예로 들었지만 「대학혁지원사업」은 다양한 부문에서 미래에 대비한 우리 대학의 변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런데 몹시 아쉬운 점은 상당히 많은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혁지원사업」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점이다. 심지어 자체평가위원장을 맡은 나도 위원회에 참가하기 전에는 잘 몰랐으니까...

구성원들과 인식을 공유하지 못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주기 사업은 ‘시스템 구축’이었기 때문에 탑다운(top-down) 방식의 사업이 많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다. 누구든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멀게 느껴질 테니까. 「대학혁지원사업」이 우리 구성원 모두의 사업으로 인식되면 좋겠다. 그래야 1주기 사업에서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값진 성과들을 빚어낼 수 있을 것이다. 2주기 사업에는 공정한 참여기회의 보장과 경쟁, 확실한 지원과 성과의 확보, 투명한 시행절차가 보장되는 다양한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세부사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발전 의지를 지닌 참여자의 적극적인 노력에 사업단이 호응해야 한다.

2주기 「대학혁지원사업」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나는 새로운 꿈을 꾀다. 우리 대학의 미래는 얼마나 찬란할 것인가? 우리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어떤 자부심을 느낄 것이며, 졸업생들은 어떤 성취를 이룰 것인가? 우리 구성원 모두에게 「단국」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의 발전은 모두 함께 이루어가야 하지 않을까? 1주기 사업에서 갖춘 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이 중대한 시점에 나는 또 내 지혜의 한계를 깨닫는다. 나는 존경하는 우리 단국 가족들에게 지혜를 빌리고 싶다. 「집단지성」이라는 어마어마한 말로 나의 한계를 감추며...



피드백에 대한 단상



유혜원 교수
자유교양대학

학기 시작이 임박하면 부담감이 엄습한다. 매 학기 두 강좌를 맡고 있는 핵심교양 <대학글쓰기>는 강의를 맡은 연차가 꽤 되었음에도 부담감이 줄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학생 글에 대한 침삭, 즉 피드백에 대한 부담이 되겠다. 20년 넘게 글쓰기 강좌를 해 오면서, 침삭 관련 연구를 참고하며 다양한 침삭 방법을 시도해 오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도 침삭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지는 못했다. “글쓰기 교육의 효과는 높지만 교수자의 부담이 적은 효율적 침삭”이라는 다소 과한 욕심을 채우는 효과적인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해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오랫동안 ‘꼼꼼하고 자세한 피드백’이 글쓰기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것 같다. 그런데 최근 이런 방식이 최선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 일이 있었다. 2008년 단국대학교 부임 첫해에 <글쓰기 기초>를 수강했던 학생이 얼마 전 새해 인사차 연락을 해 왔다. 수업 후에도 여러 대외활동을 하며 몇 년간 알고 지냈던 학생이라 가끔 인사를 나누곤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오랜만에 연락을 주었다. 새해 덕담을 주고 받던 끝에 그 학생이 1년 동안 아주 큰 병을 앓았고 이제는 많이 회복되었다는 근황을 전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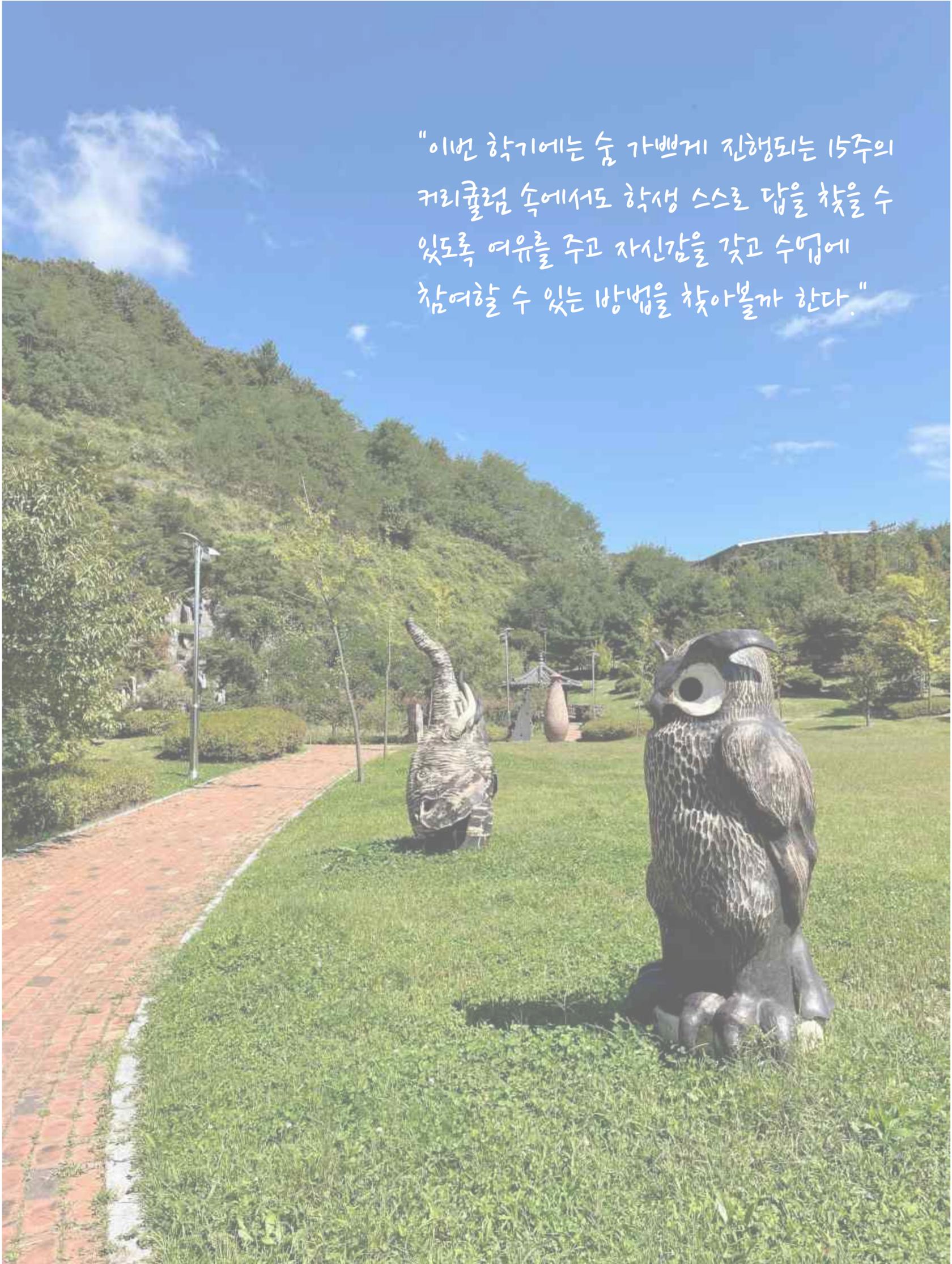
부임 첫 학기 의욕이 넘치던 시절, 그 학생은 자신의 글에 대한 나의 피드백과 평가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상담을 신청했던 학생이었다. 그 학생과 연구실에서 상담을 하며, 4페이지 빼곡한 학생의 글에 대해 줄 단위로 1시간 넘게 피드백을 했다. 이 장면에서 ‘피드백’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너무 오래 전 일이라 디테일은 생각나지 않지만 분명 난 조금 화가 나 있었고, 조금은 당황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더 솔직히 고백하자면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결기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 문득 학생의 얼굴을 보니 학생의 표정은 아주 굳어 있었다. 그 후 그 학생은 자신의 문제를 고쳐보고 싶다며 대인배다운 면모를 보이며 정기적으로 글쓰기 상담을 왔고, 후배들과 함께 참가한 국회의원배 정책토론회에서 준우승을 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 학생의 전화를 받고 2008년의 기억을 다시 소환하며, ‘피드백’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복잡한 상황과 의미를 좀 더 무겁게 고민하게 된다. 이번 학기 <대학글쓰기>를 수강하게 될 신입생과 나는 한 세대를 넘는 세대 차가 난다. 교육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피드백은 나의 의도와 무관하게 세대가 다른 어린 학생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꼼꼼하고 자세한 피드백’에 대한 대안을 여전히 찾지 못한 나는 어쩌면 이번 학기에도 조금은 친절하든 어투로 학생 글에 대해 지적하고 수정사항을 제안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2008년으로 돌아가 조금 더 성숙한 태도로 그 학생의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독려했다면 그 학생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을 하게 된다. ‘꼼꼼하고 자세한 피드백’은 글쓰기 교육에 효과적인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이번 학기에는 숨 가쁘게 진행되는 15주의 커리큘럼 속에서도 학생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여유를 주고 자신감을 갖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 한다. 좋은 수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교수님들의 노하우를 듣고 나만의 틀을 깨고 좀 더 성숙한 교육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새 학기를 만들고 싶다.

"이번 학기에는 숨 가쁘게 진행되는 15주의
커리큘럼 속에서도 학생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여유를 주고 자신감을 갖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 한다."



후회와 아쉬움을 지닌 채 떠나지만, 여러분만은 ...



유흥림 교수
공공·보건과학대학
공공정책학과

1992년 3월 시작된 저의 대학 생활 30년은 한마디로 혼돈 그 자체였다.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한 강의 및 행정 방식의 변화는 차치하더라도, 98년에는 대학 초유의 부도 사태를 겪었으며, 2007년 한남동에서 죽전으로의 캠퍼스 이전을 전후로 시작된 크고 작은 구조조정(전공 통폐합, 과 명칭, 소속 대학 및 캠퍼스의 변경 등)들을 수시로 경험하였다. 그 단적인 예가 2010년 7월 1일 ~ 2015년 6월 30일까지 만5년간 수행했던 학장 보직의 명칭이 무려 4개(법정대학, 행정복지대학, 공공인재대학, 경상대학)나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빚어진 학생들의 반발을 비롯해 학교 당국과 교수 간의 갈등, 교수들 간의 이해 충돌 등이 얼마나 첨예했는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또한 최근에는 반값 등록금 압박의 일상화에 더하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존폐위기가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니 말이다.

이렇듯 쉽 없이 몰아닥치는 위기들에 불완전한 적응을 거듭해오다 보니 어느새 정년퇴임을 코앞에 두게 된 상황에서 지난 30년을 돌아보았다. 그랬더니 미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통하여 접한 알량한 지식과 경험을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어 과도한 학문적 자존심과 무모한 열정만을 내세웠던 미성숙한 초임 교수자 시절이 또렷하게 떠오른다.

그 무렵 나의 학자적 양심과 교육 철학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겼기에, 갖가지 기괴한 행동들을 스스로없이 저질렀다. 예를 들면, 강의실에 미리 들어가 정시에 강의를 시작했고, 명절이나 연휴 기간의 교통 사정 및 각종 학생 행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강행했으며,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수강생으로부터 강의평가도 받았었다. 이러한 만행에 가까운 행태 덕분에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의 결강도, 지각도 없었지만, 이러한 결과는 맹목적인 자기만족을 위한 것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이 늦었지만 그러한 설익은 행동으로 인해 크고 작은 상처를 받으셨을 동료 교수님들께 용서를 구한다.

이뿐만이겠는가? 당시 상당수의 학생이 캠퍼스 주변에서 하숙하고 있었다. 마치 수십 년 전에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하듯, 학생에 대한 이해 제고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하숙집을 학기마다 순례하였으며, 배정받은 상담 학생들을 일일이 개별 면담을 하였으며, 약속된 면담 일정을 어긴 학생들을 강의실까지 찾아다녔으며, 경우에 따라선 학부모 상담까지도 감행했었다. 이 같은 황당한 행동에 학생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면담 일정표를 짜고, 2~3번씩 학생들에게 연락했던 조교 선생님의 수고는 얼마나 컸을까? 등. 요즘 같았으면 사생활 나아가 인권침해, 갑질 등의 비난을 받아 교수 생활을 온전하게 영위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기행에 투여되는 적지 않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1주일 1~2번은 연구실에서 간이침대 신세를 졌으며, 식당 이용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3~4끼의 도시락을 챙겨, 그것도 고속도로 교통체증을 피할 요량으로 새벽 6시 경에 서울 집을 나섰었다(이러한 버릇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강의 실시로 인해 비로소 중단되었다). 그 긴 세월 동안 꼭두새벽부터 아침 식사 준비와 함께 도시락, 여벌의 양복과 와이셔츠, 속옷 등을 챙겨주었던 집사람의 무던한 헌신과 노고를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겼었음을 깨우치게 된 요즘, 집사람과의 눈 맞춤에 어색함이 느껴진다.

이 같은 기행, 만행, 무례한 행동들로 점철된 초임 시절이었지만(물론 그 이후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나름의 보람을 느낀 적도 있었다. 백혈병을 앓고 있었지만, 경제 형편이 여의치 않았던 학생이 골수 증여자는 찾았는데, 수술비와 보상금이 없다는 말에, 사비를 보태고 학생들의 모금을 독려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던 적이 있었다.

또한 일명 고시반에 독서실용 책상이 부족해 입실을 원하는 학생들을 추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소식에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주었던 일도 떠오른다. 그리고 세칭 일류 사립대학교는 달리 동문이나 외부로부터의 장학금이 부족했던 우리의 현실을 직접 타개해 보자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 부모들을 설득하고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5000만원을 기금으로 장학회를 출범시켜 운영했었던 일도 있었다(나의 열정과 아이디어 부족으로 이 장학회 운영이 13학기 만에 중단되었던 점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것이다).

지면의 제약 때문에 지난 30년에 대한 회한과 자책은 이 정도에서 그치는 대신 나의 대학 생활은 불행까지는 아니지만, 결코 행복했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 이유인즉슨 다음과 같다. (주관적인 기준에서지만) 나만큼 열정적으로 강의에 임하고, 학생들을 사랑하며, 준수한 연구 실적을 내는 사람도 드문데, 학교 당국이나 동료로부터 그에 합당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했었다. 이 같은 그릇된 인식 때문에 내부에 정을 붙이지 못한 채, 학교를 단지 월급을 받는 직장으로만 여긴 나머지 외부 활동에 더 큰 비중을 두었던 것 같다. 물론 정부로부터 훈장도 수여 받고, 대통령 표창과 함께 장관 표창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으니 소득이 전혀 없진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그 알량한 포상들도 내가 단국대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동료 교수와 동문의 지지와 응원이 없었더라면 가능했을까? 라는 의구심과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이 교수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최소한의 의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좀 더 학교에 남아 계실 후배 교수님들께 감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저를 반면교사로 삼아 직장인 학교에 애정을 쏟으시고, 동료들과 돈독한 우애를 나누시면서, 학생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진정 행복한 교수의 삶을 영위해 가시길 바랍니다.

퇴임하시며 사랑하는 후배님들에게

한마디



윤경환 교수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저는 이번 2022년 2월 말일이면 이곳 단국대학교에 부임한 지 만으로 29년을 채우며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남동 캠퍼스에서 반을 근무했고, 이곳 죽전캠퍼스에서 나머지 반을 근무한 특이한 경력을 갖게 되었는데 아직도 한남동에 대한 향수가 더합니다. 이유는 제가 1969년 처음 도입된 중학교 무시험제도를 통해 단국중학교에 입학하여 한남동 캠퍼스에서는 인문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에서 3년을 지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은행알이 들어있는 통을 시계 방향으로 두 번 돌린 후 반시계 방향으로 한 번 돌려서 나온 학교가 단국학원이었고, 올해까지의 인연은 실로 반세기가 넘는 만 53년째로 연장이 되는군요.

2020년 2월까지 마지막 보직이었던 공과대학장의 임무를 끝내고 마지막 2년을 학생들에게 더욱 잘 도와주고 더 많은 봉사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은 코로나 사태로 재학생들의 대면수업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학생들을 직접 같이 지내면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서운했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그에 어울리는 교육 시스템의 변화에 우리 모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29년간 학교생활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몇 가지 일들 중 신입교수님들이나 현직에 계신 교수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두 가지만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일화는 제가 석사를 끝내고 미국에 나가서 박사과정 3년 차가 되었을 때 갑자기 학교의 사정에 의해 기계공학과가 아닌 응용수학과(Theoretical and applied mathematics) 소속인 Hart 교수님의 공학수학 과목의 T.A.(teaching assistant)를 맡아야만 했던 학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학기가 진행되면서 매주 학생들이 숙제로 나간 문제들에 대한 레포트를 제출하면 10점 만점의 점수로 채점을 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과 1주에 네시간인 T.A. 시간에 숙제로 나간 문제들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풀이를 해주는 역할이 하나였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하여 학생들에게 답안지를 다시 나눠주고 채점에 불만을 제기할 시 타당하다고 판정이 되면 점수를 올려주는 것이 두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강생들이 점수에 굉장히 민감하여 숙제 점수도 올려달라고 문제풀이 시간에 찾아와 곤란하게 하더니 중간고사를 실시한 이후에는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1점이라도 더 받겠다고 불만을 제기하여 아주 골치가 아팠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주말에 같이 운동을 하고 저녁식사 자리에서 이야기했더니 화학과에 다니시던 선배님께서 좋은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대로 적용했더니 학기말고사 이후에는 채점에 불만을 제기하며 찾아온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Hart 교수님이 워낙 문제를 어렵게 많이 내셔서 최고 점수가 80점 정도였는데 기말고사를 채점한 후 모든 학생에게 합산한 점수에 10점씩을 추가로 올려준 후 발생한 현상이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합산을 해본 후 10점이 올려져 있으니 사소한 1, 2점을 올려달라고 찾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채점한 시험지를 받았는데 점수가 올려져 있으면 조용히 있는 것은 만국 공통인 것 같은데, PreMed.(의대 지망생) 학생들이 많은 화학과 등에서는 수강생들이 너무 점수에 민감할 때 조교들끼리만 쉬쉬하면서 전해준 know-how였습니다. 단국대에 부임하여 항상 시험을 보면 채점 이후 수업시간 중에 학생들이 자신의 답안지와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학점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정도로 될 수 있으면 후하게 점수를 올려주었더니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으니 신임교수님들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2009년부터 2년간 대학원 교학처장을 지내면서 당시 대학원장님과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일들 중 신임교수님들이나 현직에 계신 교수님들에게도 대학원생 확보에 유용한 정보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 우리 대학에서 국내 14개의 연구소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학·연·산 협동과정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제 석·박사 졸업생들은 약 80% 정도가 위의 14개 연구소 중의 하나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의 학·연·산 협동과정으로 지원 및 입학하여 학교에서는 대학원 과정에 필요한 수업을 들었으며, 연구소에서는 학생연구원의 신분으로 학교에서는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좋은 실험장비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연구소 박사님들의 정부과제나 산업체 과제를 같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비상근 계약직 학생연구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에 따라 다르고 최근에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지만 석사과정 학생은 164만원/월, 박사는 220만원/월 기준의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학생들이 조금만 아끼면서 다니면 등록금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에 따라 제공하는 조건이나 모집공고 시기가 다르니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에는 2022년 3월 1일 연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2021년 9월~10월 중에 모집공고가 뜨니 주로 저희 연구실의 학부연구생들에게 지원을 준비시켜야 하는 등 미리 손을 써야 합니다. 또 다른 좋은 점은 학·연·산 협동과정 학생들이 양측에서 공부하고 일하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제가 연구소의 박사님들과 같이 정부나 산업체의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수주하여 그 과제를 수행하는데도 자연스럽게 유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논문 주제도 과제와 관련된 세부 주제를 발췌하여 채택하면 무리가 없고 학생들도 시간을 덜 뺏기는 일석이조였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소의 박사급이 아닌 연구원들이 같이 과제를 수행하다가 제 박사과정 학생으로 입학하는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들이 졸업 후 이력서에 이러한 경력사항을 한 줄 더 써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며, 인터뷰 시 대부분의 분들이 연수 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물어볼 때 자랑스럽게 답할 수 있었던 단골 메뉴였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학교의 학·연·산 협동과정을 운영하는 연구소는 대부분 이과 관련 연구소들이고 산업체가 따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쉽고, 몇 년 전부터는 연구소의 정규직에 한하여 장학금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지만 그 전의 제도에서 그랬듯이 우리 대학원 입학생들에게 추가로 장학금을 제공할 수 있으면 이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원 교학처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원장님과 같이 본부에 이 프로그램의 장점을 설명하여 학·연·산 협동과정의 모집정원을 제한하지 않도록 풀었으며, 연구소의 박사님을 공동지도교수로 모실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구소에 계신 박사님들이 정규직 연구원들은 뽑기 힘들니 자신들의 연구를 도와줄 학생연구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및 한국기계연구원과의 학·연·산 협동과정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신임교수님들이나 현직에 계신 교수님들도 자신의 연구 분야에 맞는 연구소와의 협동과정을 유치하거나 잘 활용하여 대학원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을 기회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퇴임하면서 너무 길게 잔소리만 늘어놓은 것 같아 미안하지만 후배님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남긴 글이니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단국대학교 교직원과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을 즐기실 수 있으시길 바라며 퇴임의 변을 마칠 것입니다.

지난 시절을 돌아보며 ...



박진완 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내게 먼 훗날의 일로 생각되던 정년퇴임이란 말이 현실이 되어가는 요즘의 느낌은 마치 마라톤을 완주한 것처럼 후련하기도 하고, 정든 교정과 사람들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빛을 진 느낌이기도 하다.

돌이켜보면 지나온 시절 내 인생의 수레바퀴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인턴수련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전공과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는 원래 비뇨기과를 하고 싶었는데 비뇨기과에서는 그해 군필자만 뽑는다고 하여 인턴수련이 끝나면 군의관으로 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산부인과 과장님께서 보자고 하셔서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네 군의관 갈 예정이라며! 혹시 산부인과 할 생각 없나? 자네에 대한 평판도 괜찮고, 비뇨기과와 산부인과는 비슷한 동네이니 할 생각 있으면 지원해라" 하신다. 생각해보니 산부인과 과장님 말씀처럼 그 동네가 그 동네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도 좋아서 그 자리에서 나의 의사로서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된 후 강원도 화천에서 공중보건의 복무가 끝날 즈음 당시 인기가 있던 시험관아기 시술에 관심이 있어 불임클리닉 전임의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교 주임교수께서 전화하셔서 "자네 제대 얼마 안 남았지? 내가 보기에 자네는 부인종양을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 그래서 내가 서울 모병원 산부인과 부인종양 교수에게 추천해 뵈으니 가서 면접봐라!" 하셔서 또 한번 내 운명이 결정되었다.

단국대에 근무하게 된 것도 전임의 수련 후 원래 서울 모교병원에 산부인과 스태프 자리가 있으면 갈 생각이었는데 부인종양 주임교수 추천으로 1991년 당시 동아대학교 병원장이셨던 이원기 선생님과 연결되어 생면부지의 부산 동아의대 전임강사로 근무하게 되었고, 이원기 교수님께서 단국대병원으로 전직하신 2년 후 또 인연이 닿아 1994년 2월 단국의대로 오게 되었다. 그 이후 나의 삶은 산부인과라는 깊은 바다 속을 즐겁게 헤엄치면서 정년까지 하게 되었으니 내 뜻대로 안 된 운명에 오히려 감사하고 싶다.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전거처럼 매일 쳇바퀴 안으로 들어가 계속 달려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대 그리스인들은 디오니소스 축제 기간 중 "오이디푸스 왕" 같은 비극을 관람하면서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불가항력적 힘에 의해 "인간은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두려움을 해소하였다고 한다. 나의 해우소는 여행이었던 것 같다.

일반적으로 의대 임상교수는 강의뿐만 아니라 매일 진료 또는 수술이 있기 때문에 휴가를 10일 이상 내기가 어렵다. 특히 방학 기간에는 환자가 몰려 더 바빠지기 때문에 장기여행은 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서도 나는 틈나는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중국인문기행"이다. 중국은 면적 자체가 크고, 영어가 통하는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오랜 중국 역사를 알지 못하면 여행의 의미가 반감되어 여행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다산연구소에서 주관하고, 유명한 한학자이신 송재소 교수님이 함께하는 "중국인문기행"을 알게 되어 참가하게 되었다. 대략 25명 내외의 인원으로서 1년에 2회, 7일 전후의 일정으로 여행을 가는데 단기간 집중적으로 알찬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인문학적 지식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는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은퇴하신 CEO, 변호사, 교수, 언론인, 공무원 그리고 소설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가하였는데 중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귀동냥하는 즐거움이 있었다.

중국여행 중에는 그날 일정을 소화하고 나면 저녁 식사 때마다 반주로 중국 술인 백주를 접하게 되는데, 백주는 증류주로 무색투명하고 술을 제조하는 양조장에서 사용하는 누룩, 밀술을 빚는 방식, 증류하는 방식 등에 따라 술의 향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에 의해 백주 특유의 장향(醬香)형, 농향(濃香)형, 청향(清香)형, 겸향(兼香)형, 기타 등으로 구분하며, 알콜 농도는 보통 50도 이상이다. 백주는 증류주의 특징인 높은 알콜 농도로 인해 마신 양에 비해 취하는 속도가 느리며, 적은 불순물 함량으로 인해 과음하지 않으면 숙취가 거의 없는 특징이 있다. 나는 애주가가 아니어서 백주의 향을 잘 구분하지는 못하지만, 첫 잔의 목넘김이 부드럽고, 혀에서부터 위장까지 훑으면서 넘어가는 느낌이 좋아 백주를 좋아하게 되었으며, 은퇴 후에는 백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 넓혀보려고 한다. 내가 좋아하는 백주는 "백운변(白云邊)"이라는 술인데 호북성에서 생산되는 겸향형 백주이다. 비싼 술은 아니지만, 술 이름이 759년 가을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이백"이 동정호에 유람와서 호수에 비친 달빛 경치에 반해 지은 시에 나오는 구문을 차용하여 작명한 백주이다. 우선 양조회사 자체가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것 같아 좋은 술을 만들 것 같고, "이백"과 관련 있으니 이름만 들어도 기분 좋게 취할 것 같고, 또한 취하면 "이백"을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좋아하게 되었다.

하지장(賀知章: 659~744)은 두보의 7언절구 "음중팔선가(飲中八仙歌)"의 처음에 등장할 정도로 술을 좋아하였으며, 그 시절 보기 드물게 85세까지 무병장수하였고, 은퇴 직전까지 높은 관직을 수행할 만큼 건강을 유지하였던 중국 당나라의 시인이자 정치가로 이 정도면 모든 애주가의 롤모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가 퇴임 후 고향에 돌아온 감회를 칠언절구의 <회향우서(回鄉偶書)> 라는 제목으로 2수 남겼는데, 정년을 앞둔 지금의 내 심정과 비슷하여 이를 패러디하여 음미해보며, 그동안 나를 따뜻하게 품어 주었던 단국대학교에 감사드리며,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신임 교수의 서(序)



정창원 교수
사회과학대학
커뮤니케이션학부

2021년 3월 커뮤니케이션학부 신임 교수로 임용된 정창원입니다. 본 지면을 통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문 분야의 중요성과 신입으로서의 각오와 포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매개’입니다. 인간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제 평생의 화두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학문은 미디어에 의해서 매개된 커뮤니케이션과 사람과 사람(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소통) 혹은 사람과 사물의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평생의 화두를 위해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미디어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그 중심에는 커뮤니케이션 학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4차산업혁명, 5/6G 네트워크, 나아가 메타버스가 사회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의 핵심은 ‘연결’과 ‘소통(커뮤니케이션)’입니다. 메타버스에서 제시하는 거울의, 가상의, 증강 현실 세계의 관건은 사물/기계와 사람 간의 연결을 전제로 기술로 ‘매개’된 환경에서 대면 소통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고, 동시에 새로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기술의 이해만큼 중요한 점은 이 기술을 활용하여 세상을 연결하고 소통하고 있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즉,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가 인간의 소통과 관계 맺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심리/문화적 맥락을 고찰해야 합니다. 동시에 뉴미디어 환경 속 새로운 관계 형성 및 다원화된 커뮤니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전략 역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결과 소통의 핵심은 인간에 대한 이해- 특히 자기(self)에 대한 이해로 시작됩니다. 자기와 자아에 대한 이해 및 본질적인 자기의 이해는 소통을 매개로 한 타자와의 관계 맺음을 전제로 합니다. 문화적 취향부터 사회/정치적 견해, 나아가 삶의 목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대학 생활에서 자기 이해와 이를 위한 소통과 관계 맺음은 더욱 중요합니다.

학생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여, 철학적, 이론적, 실용적 지혜 함양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대 청년의 고민을 함께하고,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들을 위해 저 역시 노력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될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항상 교육과 연구를 위해 수불석권(手不釋卷)의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학자의 서적은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모든 시청각적 미디어 콘텐츠이며, 이는 교육과 연구의 재료입니다. 이로써 과거의 축적된 지식과 새로운 현상들을 연결하고, 수정하고, 보완하여 교육가로서 학생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싶습니다.

“학생들에게 변화된 사회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나아가 선도할 수 있는 역량과 비전을 키울 수 있는 교육가이고 싶습니다.”

지역사회와 학생들의 미래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손원호 교수
생활체육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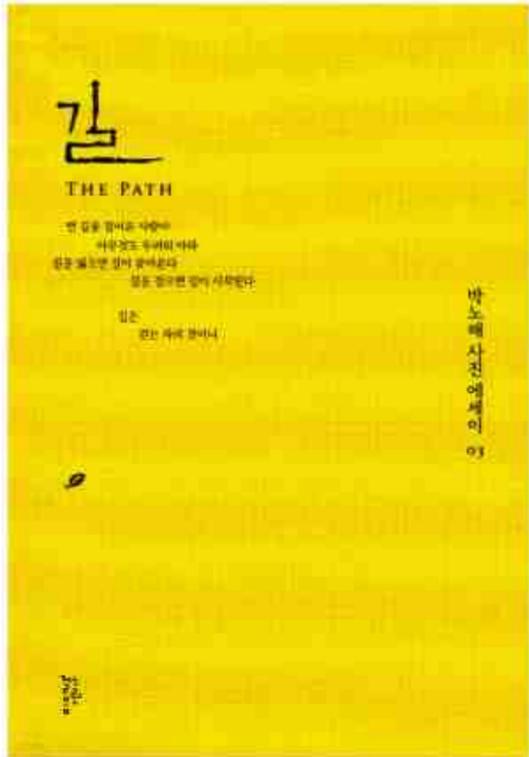
우리대학 전임교원으로서의 첫해인 2021년은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간 지도 모를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제 임용 소식에 지인들이 저보다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한 해였습니다.

교과목 강의와 학사업무에 열중하다 보면 참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하게 될 때 우리 학생들은 항상 미래를 걱정하고 또 어떤 미래를 꿈꿔야 할지에 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 또한 대학 생활을 할 때 가장 큰 고민이 바로 미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늘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능하면 제가 아는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 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주거나 최소한 관심 분야의 체험이라도 할 수 있도록 고민했던 시간들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우리대학 지주회사 중 하나인 휴엔락 요양원의 센터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인 스포츠사회학 및 스포츠복지와도 아주 밀접하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지역사회 협력 방안, CSV (Creating Shared Value) 관련 분야와도 연계성이 많다 보니 훌륭한 우리대학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고 감사하며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우리대학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 교수로서 어떤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술한 것처럼 우리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와 취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에서 조언을 주는 것만이 다가 아닌 실무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 줄 수 있는 교수가 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스포츠복지와 휴엔락 요양원 사업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로 지역사회에도 공헌이 되고,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되는 우리나라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로서 학생들도 함께 참여가 가능한 프로젝트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대학의 주인인 학생들의 미래에 보탬이 되는 교수가 되고 싶은 작은 소망으로 더욱 열심히 교육과 연구, 봉사에 매진하겠습니다.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니



먼 길을 걸어온 사람아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그대는 충분히 고통받아왔고
그래도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지난 겨울 제주 올레 19번 길을 걸었다. 조천 만세동산에서 출발하여 함덕 해수욕장과 서우봉 둘레길을 지나 김녕 서포구까지 닿는 19.2km의 여정이다. 바닷길, 숲길, 논밭길이 골고루 섞여 있어서 걷는 내내 지루하지 않았다. 북촌포구 등명대에서 숲길로 한참을 들어갔는데, 위의 구절이 적힌 작은 현판을 보고는 예기치 못한 인상을 받았다. 오솔길이 깊어질수록 인적이 드물고 햇빛이 줄었는데, 이 문장 앞에서는 발길이 멈추었다.

걸어라. 너만의 길로 걸어가라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다.
길을 걸으면 길이 시작된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시인의 저서를 구입하여 읽었다. 이 시인을 새삼 이 자리에 언급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시각이나 이념적 소환 때문이 아니라 명상적 접근의 측면에서다. 우리가 그를 지난 시대의 프레임 안에 넣고 망각한 사이 그는 지구의 구석구석을 걷는 여행자로 거듭났으며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전하는 활동가로 변모해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시인은 1991년 체포되어 24일간의 고문 후에 사형을 구형받고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1998년 7년 6개월 만에 석방되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복권됐으나 국가보상금을 거부했다. 놀라운 것은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2003년 이라크 전쟁터에 뛰어들며 가난과 분쟁을 사진과 시로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의 시선은 무겁거나 고발적이지 않고 오히려 맑은 영성으로 반짝인다.

시인의 『옥중사색』을 보니 영어의 몸으로 그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시대정신, 미래, 진보’보다는 사랑하는 이들과 먹는 밥상, 벗들과 나누는 대화 그리고 끝없이 걷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걷다가 쓰러져 영영 잠들지라도 마냥 걷고 싶은 소망을 오래 간직한 탓인지 그의 길은 파키스탄, 미얀마, 티베트, 안데스, 수단, 볼리비아, 페루, 카슈미르, 쿠르드, 라오스, 팔레스타인 등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중이다.



김태수 교수 (해이수 소설가)
예술대학 문예창작과

장편 『눈의 경전』 『십번기(十番棋)』 『탑의 시간』,
에세이 『기억나지 않아도 유효한』 등이 있다.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 재직 중이다.

신임 및 퇴임교원

교수회에서는 신임교원에게는 축전과 선물, 퇴임교원에게는 꽃다발과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2학기 신임교원

손원호 (스포츠과학대학 생활체육학과)
김병진 (예술대학 미술학부)

2022년 1학기 신임교원

박수연 (경영경제대학 국제학부)
김민주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김가영 (공과대학 고분자시스템공학부)
이희운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이승광 (SW융합대학 산업보안학과)
손수연 (대학원 문화예술학과)
김묘정 (일본연구소)
양태모 (예술대학)
장지석 (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경영학과)
이장규 (스포츠과학대학 국제스포츠학부)
장태수 (공공·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이성철 (의과대학 의학과)
이용진 (의과대학 의학과)
유신혁 (의과대학 의학과)
김서영 (의과대학 의학과)
마대성 (의과대학 의학과)
김경아 (치과대학 치의학과)

2021학년도 2학기 퇴직자

최원익(경영경제대학 경제학과)
남현도(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김인국(SW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손태규(자유교양대학)
신현기(사범대학 특수 교육과)
황광길(외국어대학 아시아중동학부)
최병규(외국어대학 아시아중동학부)
남보우(과학기술대학 경영자원학부)
김명환(과학기술대학 식품공학과)
김용환(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학부)
윤성탁(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학부)
최준수(생명공학대학 환경원예조경학부)
이원근(예술대학 미술학부)
유문집(의과대학 의학과)

2022학년도 1학기 퇴직자

윤주필(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명영수(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방성일(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허경무(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윤경환(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조경산(SW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송재용(자유교양대학)
이항재(외국어대학 유럽중남미학부)
노승정(과학기술대학 물리학과)
이유찬(스포츠과학대학 생활체육학과)
박진완(의과대학 의학과)
박동국(의과대학 의학과)
유홍림(공공·보건과학대학 공공정책학과)

상조활동

교수회는 교수님들의 경조사에 화환, 축의금,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혼

신윤원 교수 (음악·예술대학) 결혼

부고

박웅준 교수님 (과학기술대학) 빙모상
강호종 교수 (공학대학) 빙부상
최천원 교수 (SW융합대학) 모친상
신은종 교수 (경영경제대학) 부친상
정윤자 교수 (외국어대학) 빙부상
김재호 교수 (사범대학) 모친상
이건송 교수 (의과대학) 부친상
강내원 교수 (사회과학대학) 부친상

문현준 교수 (공과대학) 빙부상
강대경 교수 (생명공학대학) 모친상
이상구 교수 (의과대학) 부친상
손승희 교수 (경영경제대학) 부친상
강부식 교수 (공과대학) 모친상
최정숙 교수 (행정법무대학원) 부친상
전재열 교수 (공과대학) 부친상
최호진 교수 (법과대학) 부친상

고상숙 교수 (사범대학) 모친상
명나혜 교수 (의과대학) 부친상
정보경 교수 (의과대학) 모친상
권민혁 교수 (사범대학) 부친상
백영은 교수 (음악·예술대학) 빙모상
허재영 교수 (교육대학원) 빙모상
박현용 교수 (과학기술대학) 빙모상
김성환 교수 (과학기술대학) 빙모상

교수회 임원 및 운영 위원

교수회 임원

| | | | | |
|-------|-------------------|-----------|------------------------------|------------|
| 회장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조한승 | ☎ 죽전 3318 | ✉ hanscho@dankook.ac.kr | 사회과학관 408 |
| 부회장 | 법과대학 법학과 박영준 | ☎ 죽전 3279 | ✉ yjpark@dankook.ac.kr | 법학관 538 |
| | 예술대학 미술학부 정치영 | ☎ 천안 3721 | ✉ chired@dankook.ac.kr | 예술관 112 |
| 사무국장 |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이기광 | ☎ 죽전 3421 | ✉ kiklee@dankook.ac.kr | 상경관520 |
| 지회 |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임은주 | ☎ 죽전 3217 | ✉ elim@dankook.ac.kr | ICT관 124 |
| 사무국장 | 자유교양대학 박성만 | ☎ 천안 1398 | ✉ seongmanpark@dankook.ac.kr | 사회과학관 141 |
| 감사 |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강동승 | ☎ 죽전 3830 | ✉ dskang@dankook.ac.kr | 사범관 607 |
| | 과학기술대학 물리학과 김정윤 | ☎ 천안 3423 | ✉ jeongyunkim@dankook.ac.kr | 자연과학2관 809 |
| 여교협회장 |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박명선 | ☎ 죽전 3108 | ✉ mmspark@dankook.ac.kr | 법학관 513 |

교수회 운영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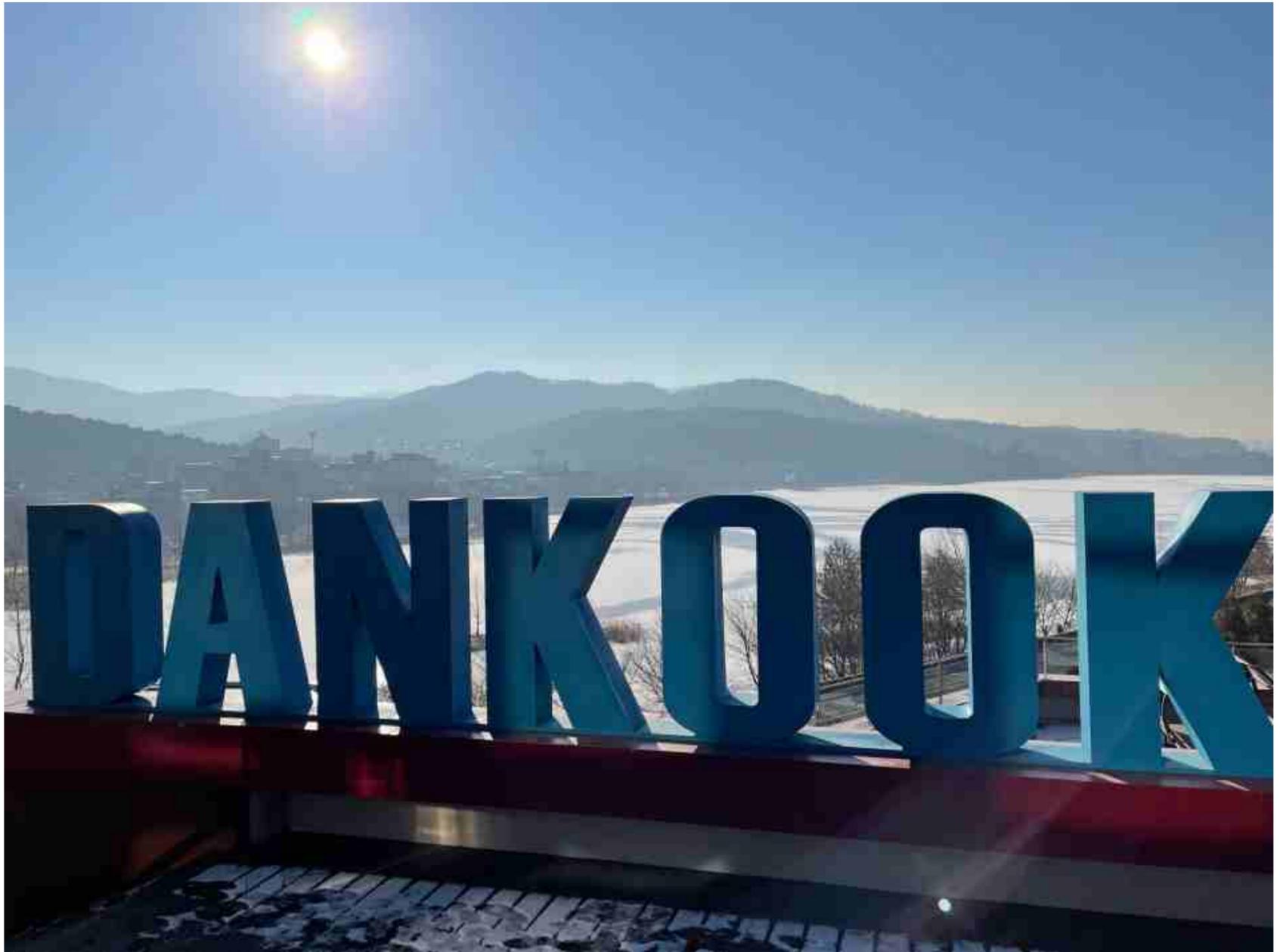
죽전캠퍼스 운영위원 (24명)

| | |
|-----------------|--|
| 문과대학 | 영미인문학과 위혜경 국어국문학과 권진욱 |
| 음악·예술대학 | 도예과 김병울 음악학부 김난희 음악학부 이수진 |
| SW융합대학 | 소프트웨어학과 이상범 컴퓨터공학과 박경신 |
| 사회과학대학 | 행정학과 남재걸 커뮤니케이션학부 전종우 |
| 법과대학 | 법학과 정해상 법학과 박영준 |
| 경영경제대학 | 경영학부 이기광 경영학부 박재준 경영학부 문보영 무역학과 이지수 |
| 공과대학 | 건축학부 홍경구 건축학부 이경구 전자전기공학부 장우영 |
| 일반/특수/전문 대학원 | 특수교육대학원 정연수 교육학과 박명선 행정법무대학원 이환수 |
| 자유교양대학 | 유혜원 |
| 사범대학 | 체육교육과 최형준 과학교육과 임은주 |

천안캠퍼스 운영위원 (24명)

| | |
|---------|--|
| 외국어대학 | 몽골학과 류병재 아시아중등학부 송상현 |
| 보건복지대학 | 심리치료학과 김민선 공공정책학과 성시경 공공정책학과 임동완 |
| 과학기술대학 | 수학과 심상길 물리학과 경지수 |
| 생명공학대학 | 식품공학과 이형재 생명자원학부 김현범 |
| 예술대학 | 미술학부 정치영 미술학부 조희경 |
| 스포츠과학대학 | 스포츠경영학과 이병관 |
| 간호대학 | 간호학과 김미옥 |
| 약학대학 | 약학과 강명주 |
| 자유교양대학 | 조상우 박성만 |
| 의과대학 | 의학과 조경진 의학과 강윤단 의학과 민준원 |
| 치과대학 | 치의학과 조자원 치의학과 신수연 치의학과 김종빈 |
| 대학원 |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이은정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오세행 |

교수회 사무국 연락처



죽전 캠퍼스 교수회 사무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상경관 532호 ☎ 031-8005-2894 엄희재 조교
천안 캠퍼스 교수회 사무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119 인문과학관 244호 ☎ 041-550-1553 김현지 조교
이메일 : prof@dankook.ac.kr 웹사이트: <https://cms.dankook.ac.kr/web/professor>

편집집행기 및 기고 방법 안내



이지수 교수
경영경제대학 무역학과

<교수회 브리프> 제17권 2호는 새해와 새학기에 대한 기대를 가득 안고 출발합니다. 이번호에는 학교의 주요사항에 대한 논의과정을 상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Book Review' 코너를 새롭게 추가하여 내용이 더 다채로워 졌고, 모바일 환경에서도 책자처럼 볼 수 있는 플립북(flip book)으로도 준비해보았습니다. 페이지 넘기기와 하이퍼링크와 같은 재미있는 기능들을 활용해 보세요.

<교수회 브리프> 는 교수님들의 참여로 더욱 신선하고 풍부해집니다. 교수님들의 글과 사연, 사진, 맛집소개와 소소한 일상, 무엇이든 함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교수회 사무국 이메일(prof@dankook.ac.kr)로 보내주세요. 글과 사진을 보내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교수회 슬로건 '섬김, 소통, 참여'를 손 형태로 상징화함. 교수회브리프 17권 1호 발행일 2022년 3월 1일
발행인-조한승, 인쇄-이기광, 편집-이지수, 제호.로고 디자인-정훈동, 행정-엄희재·김현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상경관 532호 Tel 031-8005-2894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